

백색으로 건조해야

작약은 종근 이식재배로 한다. 종근은 실생묘와 분주묘가 있다. 실생묘는 종자로 번식하고 분주묘는 뿌리를 나누어 재배한다. 분주묘는 뇌두를 600그램 1근당 10개~12개 정도로 근실하게 나누어 식재하면 평당 약1근 반 정도 소요되며, 실생묘는 크고 길쭉한 우량묘를 끝부분에서 1/3정도 자르고 평당 30주 정도 식재한다.

좋은 토질이면 적지이다. 시비로는 식재전에 완숙퇴비를 2천5백kg 이상하고 발효 계분, 복합비

작약

작약은 배수 양호하고 지력이

료 2포정도 충분히 하고 밭을 갈아 다시 토양 살충제등을 살포하여 정지작업후 로타리를 치고 3자 두둑을 만들어 식재한다. 만약 토양 산도가 많으면 사전에 석회를 많이 하고 정지를 해야된

다. 추비는 매년 새싹이 나오기 전 퇴비등을 해주면 수확량에 큰 차이가 있다.

6~7월경 병해로서 탄저병과 흰가루병이 나타나는데 이때 벤레이트로 살균을 한다. 탄저병은 캡타폴수화제와 영양제「나르겐」을 같이 혼합하여 살포하면 효과가 좋다. 4~5월경 미리 예방위주로 농약 살포하여야 한다.

수확조제 약제는 뿌리만을 거피하여 양건 또는 화건을 하는데 건조과정에서 속색깔이 백색으로 건조되어야 좋은 약재로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개화기에는 시비 금해

오미자 재배는 첫째로 묘선택에서 성패가 가려진다. 식재하는 묘는 반드시 일반 농작물을 경작하던 토지에서 1년간 적응된 실생묘로서 뿌리가 근실한 묘라야 한다.

식재주간 거리는 1.2m×45cm 간격으로 심되 깊게 심어서는 안된다. 특히 식재할때 수분이 부

오미자

식재기는 가을(10월~11월), 봄(3월~4월)으로 볼 수 있는데 수잉기가 2월부터 시작되므로 가급적 가을(10월~11월)에 심는 것이 좋다.

족하면 물을 주고 심을것과 심기가 끝나면 짚이나 거친 거름으로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야 한다.

새순이 자라면 포도원과 비슷

한 유인물을 만들어 반드시 통풍과 일조가 좋게 덩굴을 올려주어야 한다. 시비는 연간 1회(가을) 정도로 하고 개화기에는 시비를 금한다. 오미자는 햇가지에서 결실이 되므로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성장과정을 참작하여 전지를 실시하며 언제나 뿌리부분에서 자라나는 결가지는 일일이 잘라주어야 한다.

수확기는 가을(10월~11월)에 하며 열매가 붉게 익고 과피에 주름이 잡히는 때가 수확의 적기라 하겠다.

중거름, 냄새없는 것으로

국내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으며 토질은 메마른 참흙이나 모래질 참흙이 좋다. 재배방법은 종자 직파법과 종근이식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교적 종근 이식재배가 관리면으로 쉬워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종근은 해토 즉시 묘상에서 굴취 5cm~6cm 정도의 길이로 뿌리를 잘라 상층부분에 재를 묻혀 심는다. 식재 주간거리는 60cm두둑에 20cm 간격으로 골을 타고 묘주간 거리 15

cm로 하여 종근 하나하나를 뉘여 놓고 5cm 정도의 흙을 덮어준다 음 손으로 다져주는 것이 습기를

백하수요

보존하며 발아 촉진에 도움이 된다.

거름은 기비로 완숙퇴비 2천5백kg 용과린 50kg, 복합 50kg 정도를 지면에 고루 뿌리고 깊이 갈아 정지작업 약10일 후 식재한

다. 식재후 50일이 경과되면 덩굴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바로 지주를 세워 주어야 한다.

이 식물은 쉬파리를 많이 모아서 애벌레를 슬게 하므로 중거름은 가급적 냄새가 없는 거름을 택할 것이며 소독처리를 자주하여야 한다.

잘되면 1년만에도 수확이 가능하며 보통 2년째에 수확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재방법은 구근을 완전 거피하여 화건 또는 양건하면 된다. 고구마처럼 굵고 하얀 것이 좋다. 생근으로 출하해도 된다.



◇ 지난해 재배경험을 바탕으로 이소장은 올해 농가들과 지황 재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황재배면적 확대”

이 사람

이종규씨 (55)

지황재배로 평당 24kg이라는 높은 수확물을 올림으로서 인근 농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종규씨(55세)

생약협회 경남 거창군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협회에서 추진한 지황종근 개량사업에 참여 거창에서 유일하게 지황재배를 시도한 결과 지난 가을 7백여평 밭에서 생지황 17t을 생산, 평당 1만6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올해부터는 6~7천평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인근 농가에도 지황종근을 보급 계약 재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질선택을 잘 한 탓인지 재배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하는 이소장은 약초재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지력을 높이는 일

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파종전 밭 전면에 유기질 퇴비비료 1백40포(20kg)와 용성인비 15포를 전면에 고루 뿌린다음 깊이 경운하여 로타리를 친 후 이랑 넓이를 1백50cm(5자)로 만들고 검정비닐을 멀칭하여 포기사이를 24cm 간격으로 평당 36주를 심었다.

『병충해 방제로는 6월 중순경에 1주일 간격으로 다이젠을 2회 살포하고 2차방제로 8월 중순경 지오판을 2회 더 살포하고 나면 사실상 농사를 다지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접수된 지황 계약재배 면적은 약 1만여평 정도. 재배경험도 있고 올해는 자체종근 보유량이 많아 지난해보다 생산원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참당귀 종자를 파종하였는데 종자가 고르게 발아되지 않고 발아율이 낮아 재배에 큰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발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강섭 (41세,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답변 당귀는 산지에 야생하는 식물로 재배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아 작물화가 덜 이루어진 약용작물로서 일반작물과 달리 종자가 고르게 발아되지 않고 불량환경에서는 발아가 잘 되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참당귀는 봄 또는 가을에 파종하여 1년간 묘를 키워서 옮겨 심어 재배하였으나, 최근에는 직파재배 및 은상 육묘이식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배양식이 다

양하게 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당귀 재배는 종자를 채종하여 파종하는 기간

의 폭이 넓고, 파종시기와 파종후 발아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종자에는 발아억제 물질이 존재하고 있어 발아율이 저조하고, 발아가 동시에 되지 않아 발아기간이 길어 파종후 불량 환경에 접할수 있는

기간이 길다. 또한 채종 후 저장방법이나 저장기간 종자의 파종전 처리에 따라 발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자의 발아력은 채종하여

4℃이하 저온에서 건조 저장 해야

상온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되면 발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1년후에는 전혀 발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아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4℃이하의 저온에서 건조하게 저장하여야 되겠습니다.

가을에 파종할 경우에는 침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봄에 파종할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처리하거나 물을 자주 갈아주어 발아억제 물질을 제거하고 3

일 정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20~25℃에서 4일정도 두었다가 침종후 7~8일 이내에 파종합니다. 20℃이하의 낮은 온도와 25℃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발아율이 낮고 발아기간이 길어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습

니다. 특히 침지(浸漬)하여 4℃ 정도의 저온에 저장을 하면 발아일수가 짧아져 빨리 발아시킬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발아율이 낮아지며, 오랫동안 저장하면 저장중에도 발아가 진행되어 저장후 40일경에 발아되기 시작하여 90일경에는 대부분 발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종 및 발아 시작후 건조하여 수분이 부족하면 발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발아기간이 길어지므로 파종후에는 피복하여 수분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유홍섭>